

광주·전남서도 '폴무원 식중독'...교육당국 대처 엉망

광주 풍암중 31명·목포 이로초 21명 환자 발생

학교측 보건당국에 신고 않고 가정통신문도 안 보내

보건당국 '설사 환자 몇이나'에 풍암중 '없다'...은폐 의혹도

광주·전남 일부 학교에서 '폴무원 초코 케이크'로 인해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후대처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당국이 식중독 의심 증세 확인 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신고한데다,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정보제공조차 하지않아 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풍암중학교, 목포 이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서 최근 식중독 의심 환자가 각각 31명, 21명이 발생했다. 풍암중은 지난 4일, 이로초는 5일 폴무원푸드머스가 납품한 '우리밀 초코 블라썸케이크'를 점심식사 메뉴로 내놓았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 납품 예정인 제품(크림) 검사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은 폴무원 초코케이크를 식중독 원인으로 보고 있다.

광주에서는 풍암중을 포함 6개 학교가, 전남에서는 이로초를 포함 21개교가 문제의 초코케이크를 3~5일 사이 급식으로 제공했으나 두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전체 학교, 전체 학생들이 배탈이 나지 않은 이유는 생산시기별 재료, 제조라인 등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안정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식중독 발생 이후 대처에 커다란 문제점을 노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학부모가 9일 오후 직접 보건당국에 신고할때까지 학교장 등 교육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점 ▲식중독 환자가 쏟아져 나와도 각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 배탈이 난 원인

등을 알리는 등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가정통신문 안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식중독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안내를 하지않았다. 그 이유는 선불리 알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교측이 식중독 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학교측에 연락해 식중독 환자 발생 여부를 체크할 때 풍암중측이 '설사 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단순히 신고의무를 어긴게 아니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는 그때그때 신고했으나 학생들이 아프다고 했다가 다시 관찮아지는 등 오락가락해 보건당국에는 제 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는 늦었으나 시교육청 직원들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복귀하던 7일 날 나와 건강을 체크하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측의 설명과 달리 보건당국 조사결과, 해당 학교에서 설사환자가 지난 5일 8명, 6일 7명, 7일 8명, 8일 8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난 7일 기준으로만 23명의 학생이 배앓이를 했고 일부 학생은 수학여행도 불참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대처가 허술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로초교에서도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지난 6일 1명, 7일 7명, 8일 3명, 9일 2명, 10일 2명 등 총 15명이 발생했고 지난 11일 6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인되면서 원인을 놓고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로초 역시 지난 10일에서야 관할보건소에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늦장신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터미널 방역 작업

11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서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 방역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메르스 관리 대상 16명으로 늘어...특이증상 없어

국내 의심증상 5명 음성...격리 해제

광주·전남 보건당국이 관할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가 애초 14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2명이 추가돼 일상접촉자가 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확진자가 이용한 비행기에 함께 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의 근무지가 전남에 있어 전남도에 관리를 맡겼다.

이날 현재 광주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11명, 전남 일상접촉자 4명에게서 특이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밀접접촉자 A씨는 현재 자택에 격리돼 있으며, 보건

당국은 오전·오후 2차례 능동적 감시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병원들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국가지정격리병동(7동)을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도 응급의료센터 앞에 임시대기소를 설치하고 의심 환자가 들어오면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의심 환자가 들어올 것에 대비, 음압시설을 갖춘 7개 병상의 격리병동은 모두 비워둔 상태.

5개 병상으로 구성된 격리병동을 운영 중인 조선대병원도 음압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 교육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국가지정격리병동을 운영 중인 곳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립목포병원(10개 병상), 목포기독병원(3개 병상)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응급실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분류, 독립된 공간으로 환자를 옮겨 진료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1명과 일상접촉자 5명 등 6명이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5명이 1, 2차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르스 확진자 A씨(61)와 접촉자 중 의심 증상을 보인 이들에게다.

한편, 메르스 확진자 A(61)씨와 밀접접촉한 사람 21명 가운데 10명은 서울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자격 없이 양식장 설치 보조금 빼돌린 40대 실형

광주지법 해남지원(전진우 판사)은 "자격도 없이 양식장을 만들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에 맡겨 양식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건설사 명의만 빌려 직접 공사를 한 뒤 건설사가 공사한 것처럼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진도군에 허위로 제출해 2013년 보조금 2

억 9000여만원을 받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최씨의 거짓 신고로 진도군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액수가 크고 피해자인 진도군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보조금 대부분을 양식장을 짓는 데 사용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여수서 숨진 아기, 화상 입은 뒤 5일 넘게 방치

여수에서 화상을 입고 숨진 아기(광주일보 2018년 9월 11일자 6면)는 상처를 입은 뒤 5일 넘게 방치된 뒤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23)·B(여·22)씨 부부의 생후 2개월 된 딸은 병원 이송 5일 전 목욕 도중 화상을 입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5일 새벽 사이 원룸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 10일 오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전화로 걸려 문의한 뒤 병원에 데

려갔다. 아기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으며 머리와 발목, 엉덩이 등에 화상을 입고 수일이 지난 상태로 추정됐다. 아기의 몸에 다른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기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부부가 화상 직후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학대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학교폭력 신고에 집단 보복폭행 무서운 중학생들

목포에서 중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학교 후배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A(14·중2)군 등 5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일 밤 9시께 무안군 전남도청 앞 만남의 광장에서 B(13·중1)군 등 2명의 얼굴과 가슴 등을 2시간여동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 일행은 다른학교 학생을 포함해 총 15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군 등 가해자 7명은 목포 Y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지난 5월~8월까지 교내외에서 B군 등 1학년 학생 9명을 위협해 수시로 돈을 빼앗은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군 등은 신고가 접수된 뒤 1학년생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폭행신고에 앞서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왔던 사안이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도록 학교 측에 통보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버스기사 입에 버스카드 넣고 행패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입에 버스카드를 넣은 70대가 경찰서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72)씨는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버스에 탑승해 버스운전기사 이모(56)씨의 입에 자신의 버스카드를 강제로 집어 넣고 먹살을 잡아 끌어내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

○...김씨는 버스운전기사 이씨에게 신가동의 모 아파트를 가는 방법을 물어봤다가, 모른다고 답한 데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 관계자는 "버스내부 블랙박스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